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 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진보통합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수 신 :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이대영
- 제 목 : 이대영 부교육감 면담 요청서
- 일 시 : 2011년 12월 27일(화)
- 문 의 :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017-214-3550), hregang@hanmail.net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성사시키고 제정을 위해 힘써왔던 단체입니다.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시교육청 차원에서 재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주민발의를 성사된 조례안과 교육청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조례안까지 신중히 검토한 끝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은 조례의 현장 안착을 위한 로드맵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불필요한 절차로 사회적·교육적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이에 저희 서울본부 소속단체의 대표들은 이대영 부교육감님을 직접 찾아뵙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내일이나 모레 중 가능하신 시간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면담 요청 일시 : 12월 28일 또는 29일(빠를수록 좋습니다)

■ 면담 참석 예정자

(면담 일시에 따라 참석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김옥성 대표
-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심성보 상임대표

-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대표 이병우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선수 회장
- ▶ 어린이책시민연대 김영미 대표
- ▶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전은자 지부장
- ▶ 장애인교육권연대 박경석 대표
-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

(끝)